

청량감 높은 강진청자축제 28일 개막

대구면 청자촌서 7일간 개최...화목가마 불지피기로 시작

물레성형·조각·소성 등 직접 다양한 형태 청자제작 가능



한층 시원하게 단장한 여름축제인 강진청자축제가 오는 28일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에서 막을 올린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고려청자의 발상지에서 개최하는 제46회 청자

축제가 오는 28일 개막해 8월3일까지 7일간 열린다. 청자촌 공원에 있는 화목가마 불지피기를 시작으로 한류청자의 발자취를 길놀이 형식으로 배우와 관

객이 함께 어울리며 개막을 알린다.

개막 축하공연은 송대관 강진 등 가수가 출연하며, 이어지는 나이트 팝 페스티벌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단디의 DJ 공연과 화려한 조명으로 청자촌 밤하늘을 밝힌다.

올해 청자축제에서는 흙을 밟고 던지고 적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청자야 반갑다'는 물레성형, 조각, 소성까지 직접 접도로 다양한 형태의 청자를 제작해 볼 수 있는 체험이다.

29일 열리는 전국 물레성형 경진 대회는 전국의 미래 도예가를 발굴하는 킬러콘텐츠다.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예전과 다르게 참가대상을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확대 운영한다.

대회 참가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강진군청 기획홍보실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축제장은 물을 이용한 150m 초대형 워터 슬라이딩과 음악분수를 설치해 청량감을 높인다.

폭염을 대비해 주차장에서 행사장에 이르는 곳에 에어컨을 완비한 쉼터를 곳곳에 설치하고, 축제장 동선 곳곳에 안개분수를 설치해 축제장의 온도를 낮춘다. 꽃동산, 박터널, 그늘막 등 관광객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오후 1시30분에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인근 관광지를 문화해설사와 함께 구경할 수도 있다. 축제장 남문 주차장에서 출발해 영랑생가, 세계모란공원, 다산기념관, 석문공원, 강진만 생태공원을 운행한다.

강진 문화 유적 투어버스는 29일부터 8월3일까지 6일간 운영하며 사전 예약(pk1403@korea.kr)을 받는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청자축제로 강진을 알리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호텔, 유스호스텔 등 편안한 숙소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곡성 석곡농협이 석곡면 능파리 옛 석곡고 앞 대흥교 버스에 오색벼를 이용해 18일 한 폭의 멋진 그림을 완성했다.

오색벼로 그린 백세미-토란 '눈길'

곡성 석곡농협, 2만6400여㎡ 멋진 그림 완성

곡성 석곡농협이 석곡면 능파리 옛 석곡고 앞 대흥교 버스에 오색벼를 이용해 한 폭의 멋진 그림을 완성했다.

제작된 면적은 2만6400여㎡로, 평수로는 8000여 평에 이른다.

관광 곡성의 상징인 '증기기관차'와 곡성 명품쌀 '백세미', 전국 생산량의 70% 차지하는 곡성토란,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충의의 고장 목사동면'이라는 글귀와 그림이 빨강, 자주색, 백색, 황색, 녹색의 유색벼로 그려졌다.

백세미는 양재동을 비롯한 수도권의 농협하나로클럽에서 명품 쌀로 자리 잡아 인기리에 판매중

이고 곡성토란 또한 7월부터 농협하나로유를 통해 전국 판매를 시작했다.

이날 작업은 농협 직원과 부녀회원 등 100여 명이 투입돼 나흘 만에 걸쳐 당초 식재된 녹색벼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을 들여 그린 것으로

한승준 석곡농협 전무는 "백세미와 곡성토란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마음과 풍년농사로 농가소득이 늘어나 농업인의 어깨가 으쓱해지길 기원하는 마음을 한 폭 한 폭에 담았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영암군, 장터순회 '세금고민 이동상담' 큰 호응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세금고민 상담실"



영암군은 지난 17일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가 함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첫 번째 '장터순회 세금고민 이동상담실'을 신북장에서 실시하여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상담은 희망복지지원과 연계하여 평소 주민들이 궁금해 하던 국세·지방세에 대한 고민을

현장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무더운 여름철 햇빛을 가리고 더위를 식혀주 듯 납세자 권리보호 효자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납세자보호관 효자손 부

채'를 제작 홍보 활동을 겸하였다.

신북면 주민 김모씨는 "최근 미경작 사유로 취득세 추징 고지서를 받아 고민중이었는데,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고, 이모씨는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고 싶었는데 마을세무사로부터 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안 상담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국세와 지방세 전문가로부터 한 자리에서 상담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세금고민 상담실이 되도록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납세자와 주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힘쓰겠다"며 납세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지역관광의메카로 정문지점 **湖南新聞** 전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氣찬랜드, 바람개비로

기풍(氣風)영암 이미지

영암군에서는 2018 영암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3백만명 유치목표로 연초부터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무더운 여름철 피서객에게 보다 아름답고 시원한 경관 제공을 위해 기찬랜드 전역에 걸쳐 바람개비 조형물을 설치했다.

군은 기찬랜드 개장일(7.14)에 맞춰 총 300개의 바람개비를 설치하였으며,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개장식 행사에서 첫선을 보여 색다른 기찬랜드의 모습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군에서는 형상화하기 어려운 기(氣)라는 브랜드 활용을 위해 바람(風)으로서 기(氣)를 형상화하여 '기풍(氣風)영암'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기찬랜드 개장에 맞춰 시범적으로 바람개비 경관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유러 "기찬랜드 바람개비 경관 조성에 대한 관광객의 반응을 살펴보고 통일된 '기풍영암' 이미지 조성을 위해 군 주요 관광지, 도로변 등 전역으로 바람개비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여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해남공룡박물관서 만나는 '와글와글 동화천국'

"평글 해남의 공룡박물관이 신비하고 기발한 동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공룡박물관은 8월말까지 이현우 작가의 개인전 '와글와글 동화천국' 그림 전시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동물들의 이야기 나라'란 주제로 유화와 아크릴 작품 등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표정의 인간들을 비롯해

동물, 역사 속 인물들이 등장하는 작품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오가며 입진왜란에서부터 신화속 오이디푸스, 스타벅스와 아디다스 상표까지 작품속에서 녹여내고 있다.

아이의 눈처럼 맑은 영혼을 투영한 작품들이 무한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광주지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